



1월 4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22	1.1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66.78	1,194.20	↓ -2.30	↑ 5.70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307.13	6,373.41	↓ -1.04	↑ 5.49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8,878.54	49,034.67	↓ -0.32	↑ 2.36	25,981.24 '20/03/23	49,792.12 '21/01/20
중국	상해종합	3,606.75	3,566.38	↑ 1.13	↑ 3.85	2,660.17 '20/03/23	3,621.26 '21/01/21
	심천종합	2,456.24	2,366.86	↑ 3.78	↑ 5.45	1,609.00 '20/02/03	2,456.24 '21/01/22
홍콩	H	11,677.45	11,320.53	↑ 3.15	↑ 8.74	8,559.64 '20/03/19	11,949.35 '21/01/20
	항셱	29,447.85	28,573.86	↑ 3.06	↑ 8.14	21,696.13 '20/03/23	29,962.47 '21/01/20
한국	KOSPI	3,140.63	3,085.90	↑ 1.77	↑ 9.30	1,457.64 '20/03/19	3,160.84 '21/01/21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22	1.15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2	2.24	↓ -1.50	↓ -35.90	2.15 '20/03/09	3.65 '20/04/01
인도네시아	6.27	6.18	↑ 8.80	↑ 38.2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5.91	5.95	↓ -4.40	↑ 4.10	5.75 '20/05/28	6.64 '20/01/22
중국	3.13	3.15	↓ -2.20	↓ -2.0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1.76	1.73	↑ 2.50	↑ 3.30	1.26 '20/03/09	1.76 '21/01/22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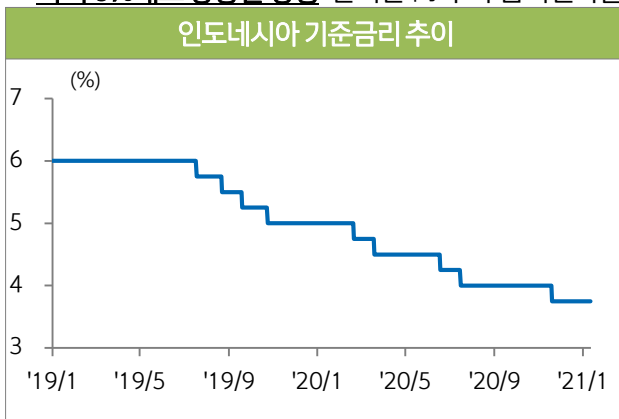
구분	1.22	1.1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74.00	23,067.00	↑ 0.03	↓ -0.10	23,054.00 '21/01/11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035.00	14,020.00	↑ 0.11	↓ -0.11	13,583.00 '20/01/24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2.98	73.07	↓ -0.12	↓ -0.13	71.20 '20/01/22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48	6.48	↑ 0.02	↓ -0.69	6.46 '21/01/05	7.17 '20/05/27
달러-원 (KRW)	1,103.24	1,099.43	↑ 0.35	↑ 1.54	1,081.81 '20/12/04	1,285.73 '20/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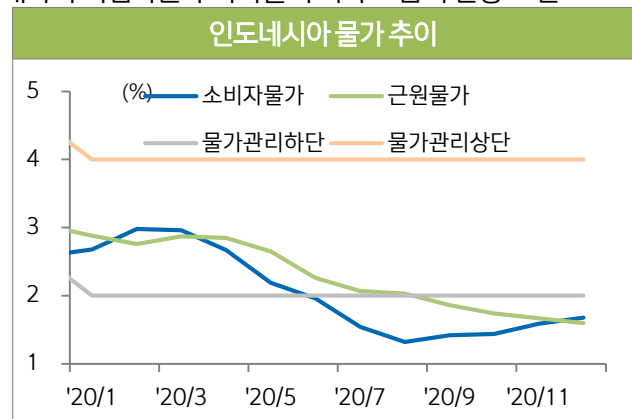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로 경제 회복 흐름 지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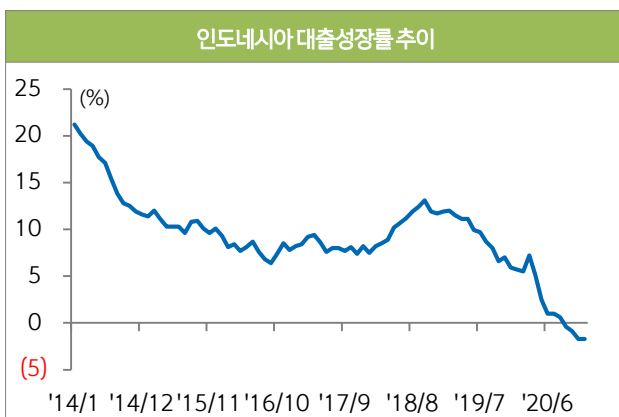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75%로 2개월 연속 동결하였음**
- ▶ 12월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8% 상승하여 11월의 1.59%보다 상승폭을 키우고 8월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리범위인 2~4% 범위를 하회하였으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으로 3월 이후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카르타 일대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1월에도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평균 만명대의 확진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수 증가세를 멈춰보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중앙은행은 이러한 낮은 물가 상승률이 백신 긴급 사용승인을 통해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면 관리범위 이내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
- ▶ 한편, **인도네시아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은 12월에 더욱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년대비 -2.41%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통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부실채권 비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어 은행권의 대출 공급 의지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 집행 주체들이 현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사업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임. 중앙은행은 은행권을 독려하여 대출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기로 하였음.
- ▶ **인도네시아 국채금리는 美 연준 의사록에서 Tapering 언급이 나온 이후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다시 6%대로 상승한 상황.** 단기간 內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투자자들의 시각도 금리 반등 요인.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주요 뉴스





## 원광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2번째 니켈수입국 위치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가 2020년부터 니켈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급격하게 수출 통관 자료에서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중국 측에서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원광 수입 규모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최근 철광석 가격 급등에 따라 중국측에서 저품위 니켈선철 수입을 늘리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2020년에 중국이 수입하는 니켈 원광석 수입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중국 세관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음. 이러한 규모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원광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임.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지난해 수출한 니켈 원광석 규모는 340만 톤으로 관세청을 통해 집계되었음. 이러한 규모는 2019년 대비로는 85.8%로 줄어든 것인데, 필리핀의 3,198만 톤에 이은 두번째 순위이며, 뉴칼레도니아가 3위를 차지하였음.
-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2월 동안 수출한 규모는 198만 톤으로 해당 물량은 2020년 1월 1일 원광 수출 금지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통관이 완료된 건이었으며, 이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의 통관이 지연된 영향도 받았음. 1~2월의 통관 수치를 제외하고 본다면, 지난 2020년 평균 니켈 원광석 중국향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12월에는 78,245톤에 불과하였음.
- 인도네시아 쪽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석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제련을 강조하면서 1~11월 사이에 중국향 니켈 원광석 수출은 0에 가까웠던 것으로 집계되었음.
- 중국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 관료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수출될 때는 철광석으로 수출이 집계되었지만 중국 쪽에서는 니켈 원광석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함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선적 데이터 상의 차이는 1%의 니켈 성분과 50% 이상의 철 성분을 포함한 원광석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광석으로 분류하는 것 같다고 CRU의 Ellie Wang 연구원은 말하였음. 중국의 일부 스테인리스 스틸 기업은 해당 광물을 니켈 원광석으로 신고한다고 그녀는 덧붙였음. "그들은 이들 원광석을 다른 품위의 원광석과 혼합하여서 저품질 니켈선철을 만들어 냅니다."라고 그녀는 스테인리스 스틸용 니켈선철 수요를 언급하였음.
- BMO의 Colin Hamilton 연구원은 이러한 조치가 높은 철광석 가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충분히 업체들이 검토해볼만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음. "저희는 항상 일부 니켈 원광으로 분류된 수입 물량을 연간 철광석 수입 수치에 합산하여 분석합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해 그래왔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음.

(뒷면계속)

-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석 수출을 금지한 2020년에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니켈 선철 수입은 지속되었으며, 전년대비 100.9% 증가한 273만 톤을 기록하였음.





## Grab, 미국 시장에 IPO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 ❖ 요약 및 시사점

Grab과 Gojek이 합병 논의를 진행하다가  
딜이 깨진 이후 Grab은 미국 시장에서의  
IPO를 준비하고 있음. 사업 부문들의 확장에  
이어 주요 사업 부문들에서 손익분기를  
넘어서고 증시 주변의 투자자들의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대규모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동남아시아 최대 승차공유 및 음식배달서비스 기업인 Grab이 올해 미국 시장으로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신규 IPO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기를 이용할 것 같다고 관련 소식에 정통한 3명의 인물을 통해 Reuter가 보도하였음. IPO를 통해 조달하는 금액은 최소 2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취재원은 말하였으며, 이러한 규모는 동남아시아권 기업들 가운데 해외 상장을 추진한 것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시장 현황이 매우 좋고 사업도 이전보다 훨씬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장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 ▶ 상장 규모와 시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 환경에 달려있다고 취재원은 말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그룹은 잠재적 IPO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을 하진 않았음.
- ▶ 소프트뱅크 그룹과 미쓰비시UFJ 금융그룹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Grab은 2012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승차 공유 벤처로 시작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확장하여서 16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니는 스타트업의 하나가 되었음.
- ▶ Grab은 또한 금융서비스 부문으로도 확장을 진행하였고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은행 면허도 취득하여서 이달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또한 승차 공유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모든 시장에서 손익 분기를 달성하였음. Grab은 음식 배달 사업도 올해 말이면 손익 분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였음.
- ▶ IPO 계획은 라이벌 기업인 인도네시아의 Gojek과의 M&A 논의가 좌절된 이후에 발표되었음.
- ▶ Gojek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선두기업인 Tokopedia는 인도네시아 증시와 미국 증시 양쪽으로 상장하는 방향에 앞서 18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Reuter는 발표하였음.



## 도이치은행,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 전망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현지 통화 채권 발행 최우수 PD사로 2년 연속 지정된 도이치 인도네시아 은행은 인도네시아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루피아화 강세와 높은 캐리 매력에 힘입어 부각되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올해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상황에서 늘어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일정부분 소화해주며 금리 안정화 예상

- 인도네시아 도이치은행은 루피아화 강세와 우호적인 금리 수준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국내 자본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며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독일계 투자은행인 도이치은행의 인도네시아 부문인 해당 은행에서는 루피아화가 올해 상반기 동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진전에 힘입어서 잠재적인 경제 반등이 나타나는 것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음. 도이치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의 회복을 위한 부영 조치로 5번의 인하를 단행하였지만 올해는 3.75%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이러한 결론에 따라 도이치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머징 시장 가운데서도 변동성 조정 캐리 수익률 측면에서 양호한 국가 중 하나로써 손꼽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에 있어서 아시아 시장에 자산 배분할 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수준의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도이치은행의 인도네시아 대표인 Siantoro Goeyardi가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격적으로 올해 채권을 발행해서 695.2조 루피아(494억 달러) 수준의 코로나19 부양책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세수 부진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에 따른 영향임.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958.6조 루피아를 채권 발행 및 차관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이 금액은 2019년 대비 143.8% 증가한 금액임. 한편, 12/21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997.41조 루피아의 루피아화 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2019년의 1,060조 루피아보다는 6%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초에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위험자산을 투매하였음
- 한편, 인도네시아의 외화표시 채권은 "글로벌 이머징 채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이었으며, 벨류에이션도 올해는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수준으로 왔다"고 도이치은행은 발표하였음.

(뒷면 계속)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월에 4개 트랜치로 구성된 국채를 발행하여 30억 달러와 10억 유로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였음.
- 이달 초에 재무부는 도이치 인도네시아를 루피아화 채권 발행을 중개하는 최고 PD 사로 2년 연속으로 지정하였음. 도이치 은행은 채권 트레이딩에 있어 시장 조성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는 유일한 외국계 은행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은 도이치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로컬 통화 채권 시장에서의 시장 조성자로서의 최고 외국계 은행 지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이머징 시장 프랜차이즈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플랫폼의 능력에 대해서 재부각시켜줍니다."라고 Siantoro 대표는 말하였음. "저희는 인도네시아 현지 통화 국채 시장의 유동성과 저변을 넓히는 것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라고 도이치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부문장인 Francis Soetopo는 덧붙였음.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유럽의 팜오일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공동으로 유럽의 팜오일 규제 조치에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협력하는 한편으로 유럽의 조치로 인해서 팜오일이 유해하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해소하고자 지속가능 원료로서의 팜오일을 홍보해나가기로 협력을 맺었음

-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팜오일 수요 국가였던 유럽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판매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동으로 법률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음. 팜오일 생산국가 협의회(CPOPC)의 플랫폼을 통해서 양 국가는 유럽이 올해 진행하려고 하는 팜오일 축소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 법률 회사를 고용하기 위한 제안서를 발송하였다고 관련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이 말하였음.
- 립스틱, 피자 등 생활용품에서 바이오 디젤까지 다양한 것들에 사용되는 범용적인 원자재인 팜오일에 대한 공동 법률 대응은 해당 산업에 직면하고 있는 규제적인 어려움과 팜오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작물을 재배하는 팜오일의 생산자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생태적으로 다양한 열대우림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것과 이민 노동자들을 험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음.
- EU는 숲 황폐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대해 여러 규제 조항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팜오일을 식료품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는 방향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CPOPC는 유럽연합 특정 국가들과 영국에서의 팜오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미디어와 논의할 권한이 없다면서 신분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였음. 해당 계획이 아직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말하였음. CPOPC 자체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즉각 답을 하진 않았음.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전에도 특정 법률 요청과 로비를 진행하였지만, 팜에 대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심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양국이 합쳐 전세계 팜오일 생산의 85%를 담당하고 있으며 같은 목표시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혼자서만 전세계 팜오일 생산의 60%를 생산하고 있음. 인도와 중국이 1,2위 팜오일 수입을 다투고 있지만, 유럽도 전세계 원자재 관련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대한 시장임

(뒷면 계속)

- 말레이시아 관료는 이달에 새로운 규제가 EU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팜오일 용도에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품에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고 경고하였음. EU는 일단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용 팜오일의 사용을 2030년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두었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팜오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났으며, 생산자들이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음. 일부 유럽 국가들은 팜오일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업들에 요구하고 보이콧하고 있음.
- EU는 2020~2021 시즌에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670만 톤 수준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앞선 시즌에 비해서 8%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USDA는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감소는 일정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둔화의 영향이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바이오디젤 협회(MBA)는 이것이 '(유럽의) 팜오일 제한 정책' 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였음. "저희는 더 이상 EU의 팜오일 반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팜오일이 진짜 나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럽의 수많은 시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매우 나쁜 상태여서 그들의 마음과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MBA의 Long Tian Ching 부회장이 산업 컨퍼런스에서 얘기하였음.





## 중앙은행, 2021년에는 외국인 투자가 1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 평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이에 따라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함

- ▶ 중앙은행은 2020년에는 110억 달러로 부진하였던 외국인 투자 유입이 2021년에는 191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서 선호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말하였음.
- ▶ 외국인 투자가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총재는 말하였음.
- ▶ 거기에 덧붙여, 재정 및 통화 정책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뤄지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환경도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음.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음. 총재는 1/20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저희는 우호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투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선호지역으로 분류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 ▶ 1/19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규모는 51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상당 부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채권 발행을 진행함에 따라 유입된 것임.
- ▶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4분기에 21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유입되었고 3분기의 17억 달러 유입보다 증가세가 높아졌다고 확인되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 기업가들에게 대형 기업/농부 간 협업 모델 구상을 요청



###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기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업 분야의 생산성 강화를 통한 수입대체 및 국가 경쟁력 확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음. 영세한 규모의 영농인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자본을 투여하면서 기술 전수를 하는 협력 모델을 구상하도록 지시하였음.

- ▶ 조코위 대통령은 대형 기업과 농부 간에 협력을 통해서 국내 농업 생산물 생산을 늘리고 식량 자원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기업 대표자들에게 촉구하였음. “저는 기업 대표님들이 대형 기업과 농부들 사이의 협업 모델을 구성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앞서 얘기해온 농산물 식품 자원의 수입을 줄여나가는 것을 실현하게 되길 희망합니다.”라고 대통령은 Kompas가 마련한 CEO 포럼에서 말하였음.
- ▶ 대통령은 농업 부문이 수입을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설탕, 대두, 옥수수, 마늘 등의 식량 자원을 국내 수요 대비 부족하여서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수입은 점차 줄이고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자원을 생산해 내야 하는 상황임. 국내 생산 능력이 개선되고 양적, 질적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마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NTT, Wonosobo, Temanggung 등이 마늘을 재배하면서 수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들이 재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 ▶ 대통령은 농업 부문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음. 농업 부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생존과 회복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 여러 산업 부문이 코로나19의 타격에서도 살아날 것인데 조코위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농업, 제약업, 기술 및 금융 서비스업 등이 회복을 이끌 업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저희는 또한 약들의 80~85% 가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래에는 여기서 큰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관련한 상/하류 부문 모두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튬 배터리에서만 해도 우리는 니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여서 즉각적으로 실행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 효율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 자본 투자 강조



###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극복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언급하였음. 코로나19를 통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 측면의 디지털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어 향후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임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 산업계에게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것을 강조하였음. “저는 우리가 디지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 부문들은 디지털화되어야 합니다. 정부, 교육, 보건 부문 등 전 부분이 디지털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 대통령은 2021년에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극복하면서 모멘텀이 높아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우리는 앞에 닥쳐올 문제들에 대해서 더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새로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혁할 것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 대통령은 또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와 관련한 상/하류 부문 모두에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몰아붙이고 빠르게 실행하여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 디지털화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 중앙은행에 따르면 산업계는 기존 업무관련 거래들을 디지털화하는 등 사업 모델을 바꾸어 가고 있음. “기술 접목을 통해서 성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결제 정책 부문장인 Filianingsih Hendarta가 같은 행사자리에서 말하였음.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디지털 거래를 늘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러한 환경이 산업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은행산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하였음. Hendarta는 인도네시아가 2.69억명의 인구와 3.38억개의 휴대폰 이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기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그는 거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1.75억명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지니고 있으며, 생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매우 큰 인구통계학적인 보너스 구간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하였음.

(뒷면 계속)

- 정보통신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6,300만 중소기업들이 아직 디지털 상거래 및 관련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단지 14.8%에 달하는 940만 기업만이 이용 중이라고 밝혀진 바 있음.
- 중앙은행은 온라인 거래(전자상거래)의 규모가 2020년 2분기에 3억 8,350만 건으로 2020년 1분기의 2억 7,580만 건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하였음. 전자상거래의 거래 대금 규모는 1분기의 58.5조 루피아에서 55.9조 루피아로 다소 축소되긴 하였음. 은행 이외의 전자화폐 부문에서는 거래 규모가 2020년 2분기에 6억 5,930만 건으로 1분기의 7억 8,250만 건에서 소폭 축소되었음.





## 재무장관, 코로나19 중에도 인프라 개발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



###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 대응 부문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병원 건설 등 보건 체계 자체 강화와 물류/도로 등 인프라의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재무부 장관이 강조하였음. 국가 재정사업으로도 진행가능하지만 샤리아 금융 등을 중개 하여 창의적인 조달 방법도 논의 중임

-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이지만 교육 보건 등과 관련한 투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의 집행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우리는 개발 활동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중에서도 개발 프로그램들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2021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 정책 포럼 자리에서 말하였음.
- 재무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 부문에 대한 인프라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보건 분야에서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들을 개선하는 등의 추가적인 단계들을 통해 강화해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음.
- 장관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창의적인 금융 조달 방법들을 창조해내고 개발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장관은 2013년 이래로 운영되고 있는 창의적인 조달 기구인 SBSN을 예로 들었음.
-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SBSN 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개 기관이 이용했지만, 2020년에는 8개, 2021년에는 11개 기관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음. “누적 금융 지원 규모는 145.84조 루피아에 달합니다.”라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 인프라 프로젝트의 조달을 위해서 SBSN은 경제 개발과 샤리아 금융을 중개하는 역할을 인도네시아에서 맡을 수 있을 것임. “SBSN을 프로젝트들을 연결하는 도구로 여기고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하였음.
- 재무장관은 SBSN에 의해 조달된 프로젝트들의 성과와 질적인 부분들이 단순히 차관으로 조달한 것들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면, 정부가 인도네시아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재무부, 샤리아금융을 통해 인프라 금융에 27.58조 루피아 편성



###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와중에도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샤리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을 각 정부 부처별로 시설 건설 등의 용도로 배정해두었음.

도로, 항만, 항공 등 교통시설과 함께 종교, 교육 시설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인적자원 개발에도 투자

- 국영 샤리아 증권(SBSN)을 통해서 2021년 동안에 조달된 금액 가운데 27.58조 루피아의 인프라 금융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재무부 금융 및 위험관리 국장인 Luky Alfirman이 말하였음. "2021년에 샤리아 국채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할당은 27.58조 루피아이며, 11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 걸쳐 870개의 프로젝트에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라고 그는 2021년 SBSN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 조달 정책 포럼에서 말하였음.
- 그에 따르면, 2021년 SBSN 조달 자금 27.58조 루피아를 통해 지원되는 870개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부처 및 기관 11개는 다음과 같음 : 교통부, 행정주택부, 종교부, 환경 및 수림부, 농업부, 국방부, 문화 교육부,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연구소(Lapan), 인도네시아 과학 연구소(LIPI), 경찰청(Polri), 국립 핵에너지 위원회(Batan) 등임. 이 가운데 교통부와 행정주택부에 편성되는 비중이 가장 크며, 해당 사업들은 연결성과 물류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2021 SBSN 프로젝트는 교통부가 추진하는 5.66조 루피아 규모의 40개 대지, 해안, 항공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주택부가 추진하는 10.53조 루피아 규모의 도로 및 교량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음. 행정주택부는 수자원 관리국을 통해서 개간 및 도시 상하수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댐과 저수지 건설 등을 통해서 홍수 및 화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69개 프로젝트에 4.23조 루피아를 투입할 예정임.
- SBSN 프로젝트에는 8개 Hajj 관련 프로젝트가 있으며, 42개 통합 Hajj 서비스 센터 등을 건설하는 3,820억 루피아 규모의 종교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고, 국립 이슬람 종교대학과 269개 이슬람 학교에서 운영하는 2.78조 루피아 규모의 11개 건설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음. 종교부의 예산에는 2,000억 루피아 규모의 결혼시설 및 Hajj 종교행사 시설 건립을 위한 135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교육부가 건설하는 1.54조 루피아 규모의 19개 고등 교육시설 건설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음.
- 환경 수림부는 조림사업을 가르치는 직업 학교의 개발과 현장 연구실의 건설, 3개 국립공원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1,818.9억 루피아를 배정받았음.

(출처 : Antara News)

-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가 진행하는 7개 연구실 건설 프로젝트에 6,590억 루피아 규모를 배정하고, 항공우주연구소에 900억 루피아, 그리고 국방부가 진행하는 9,640억 루피아 규모의 61개 관사 개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음. 경찰청도 1,990억 루피아를 투입하여 30개 관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농업부는 192억 루피아 규모의 농업 연구소 개발 프로젝트, 국영 핵에너지 위원회는 1,240억 루피아 규모의 연구실 건설 등을 진행함

